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前號에서 계속〉

醫 學

이슬람醫學 역시 그리이스의 전통을 흡수하여 성장했다. 아랍사람들이 古代 西洋文化를 번역을 통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8세기에 이미 醫學書는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9세기 중반의 최대 번역가 후나인·이븐·이샤크는 그의 조수들과 함께 많은 책을 번역했는데 그 속에는 히포크라테스, 디오스코리데스, 갈렌등의 의약관계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이스와 로마의 醫藥書가 모두 아랍에 소개된 것이다. 사실은 이 번역의 책임자 후나인 자신이 기독교도로서 의사였던 것이다.

원래 아랍사회에서는 다른 어느 사회보다 醫學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큰 도시에는 큰 병원을 세워 입원실·수술실·진찰실·목욕실·식당등을 갖추고 있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시험을 보아야 했다. 아랍 사람들은 西洋醫學을 대꾸모로 번역하기 전에 이미 印度의학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6세기에 이미 印度에 간 사절은 인도 의사를 초빙해 왔을 정도였다. 東·西에서 모두 의학지식을 얻어온 아랍사람들은 8세기부터 이미 독자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알·만수르王 때의 유탘나·이븐·마사와이는 아랍 醫學의 첫 독창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眼科學에 관해 논문을 남겼다. 그는 또 영양학, 婦人科學에 대해서도 글을 썼는데 그의 이름은 라틴名 요한베스·다마스케누스로 더 널리 알려져있다. 9세기에 후나인 이븐·이

샤크는 번역에서 얻는 의학지식을 모아 〈醫學문답〉이란 책을 썼고, 유명한 의학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지혜의 낙원〉은 페르샤출신의 알·타바리에 의해 편찬되었다.

10세기 시작쯤부터 이슬람醫學은 보다 창조적인 단계에 접어든다. 연금술사로드 유명한 알·라지는 바로 알·타바리의 제자였다. 테헤란 근처가 고향인 그는 고향 병원의 원장을 지낸 적도 있다. 당시 아랍의사들은 환자는 직접 보지도 않고 환자의 오줌만을 보고 진단하는 수가 많았다. 알·라지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 남보다 뛰어난 치료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또 心理 치료에도 유능하여 한번은 권세가 당당한 왕족 한 사람을 치료해 준 일도 있다. 그 왕족의 마비증세가 보통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단정한 그는 환자를 온천에 데려다 넣고 그를 극도로 흥분시켜 제발로 뛰어나오게 자극하는 방법을 썼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환자는 마비도 잊고 벌떡 일어나 쫓아 나왔고, 알·라지는 그를 피해 미리 준비해 둔 말을 타고 멀리 달아나버렸다. 결국 사건을 알게된 왕족은 여하튼 자기 병을 고쳐준데 감사하여 그를 후하게 상주었다는 전설이다.

그러나 왕족을 치료하는 의사란 성공할 경우엔 후한 대우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었다. 알·라지는 늑오막에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어느 왕족으로부터 치료 실패에 대한 처벌을 받아 머리를 책으로 구타당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눈을 잃기 전에 이미 중요한 醫學上の 업적을 책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알·라지의 〈천연두와 홍역〉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상세한 임상기록과 진단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천연두와 홍역을 다른 비슷한 질병과 구분하는 방법을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 이에 本誌는 「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 「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註>……○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은 오랫동안 최고의 권위를 가져 1866년까지 여러차례 책이 출판되었다.

그는 또 <醫學集成>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20권의 대작인 이 책에는 10세기로 이슬람醫學 지식이 모두 정리돼 있는 셈이다. 의학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너무 방대하여 웬만한 의사는 사볼 수도 없다는 불평을 들었다지만 보전에서부터 온갖 질병에 대한 모든 지식이 모아져 있다. 이 역시 1279년 라틴어로 번역된 이래 1542년까지 여러 차례 출판되어 유럽의 의학발달에 이바지했다.

알·라지를 능가하는 아랍醫學의 최고 권위 의학자는 이븐·시나(라틴名: 아비첸나)이다. 그는 이슬람세계의 아리스토텔레스로 일컬어질 정도로 학문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히포크라테스 이후 그리이스醫學의 기본적 이론은 4體液說을 갖고 있었다. 인체에는 血液·粘液·黃膽汁·黑膽汁의 네가지 체액이 있어서 이들의 조화상태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이론이었다. 이 이론을 계승한 이슬람醫學은 인체의 生理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음식물은 위장에서 소화되어 흡수되는데 이때 세 가지로 分離된다. 즉 영양액·粘液·배설물의 셋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영양액만이 肝에 옮겨져 거기서 다시 세가지로 분리된다. 황당즙·흑담즙·혈액이 그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혈액은 심장으로 가서 동맥을 타고 온 몸에 퍼진다.

천재 소년이었던 이븐·시나는 로마의 갈렌으로부터 이슬람의 학자들이 믿고 있던 이런 이론을 어린 시절에 이미 모두 익혀두었다. 의사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자 왕족이나 귀족과의 갈등이 없지 않아서 때로는 몸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븐·시나는 이런 피난시절을 이용하여 방대한 책을 쓰고 있었다. 그것이 뒷날 그를 아랍 최고의 의학자로 만들어

준 <醫學大典>이었다.

<醫學大典>은 다섯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부——生理·해부·病理

제 2부——藥草

제 3부——질병에 대한 설명을 위에서 아래로, 즉 머리·뇌·눈·귀·코·입·혀·이·잇몸·목·가슴·허파·심장·식도·위장·췌장·담낭·비장·장·생식기 등의 순서로 내려간다.

제 4부——중세의 종류로 본 질병, 즉 熱·畏양·골절·독물·피부병

제 5부——복합약품과 치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약품은 모두 760종이나 되며, 특히 脈을 짚어 진단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診脈이 中國과의 교섭에서 얻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는 이 책에서 想思病도 다루고 있는데 그 치료법은 사모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슬람醫學의 창조성은 별로 높이 평가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이슬람은 인체를 그림으로 나타내지도 못하게 했으며, 인체의 해부도 금하고 있어서 醫學발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렌 이후의 전통적 의학이론에 대한 비판도 이슬람세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카이로에서 활약한 이븐·알·나취스(1210~1288)는 심장의 좌우사이에 구멍이 뚫려있어 피가 통한다는 갈렌의 주장을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철학자로도 유명한 이븐·루시드(라틴名: 아베로에스, 1126~1198)는 <일반의학>을 지었는데, 눈의 망막을 제대로 이해한 첫 의학자였고 천연두는 한번 앓은 사람은 다시 걸리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계속)